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

# 우리 어머니인 지구

Nostra Madre Terra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31)



- 본 당 명 : .....
- 구역 · 반 : .....
- 성명 · 세례명 : .....

발 행 처 :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전화번호 : 062) 380-2834 FAX 062) 380-2815  
홈페이지 : [www.gjcatholic.or.kr](http://www.gjcatholic.or.kr)



#### 참고문헌

프란치스코 교황 / 환경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 우리 어머니인 지구(Nostra Madre Terra)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교회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 차례

004	서문	사순 1주간
006	통합적 전망	
006	전 세계의 협력	
006	노동의 가치	
007	우리 자녀들에게 빚진 자산을 보전하기	
010	이 시대의 도전 과제에서 전 세계적 기회로	사순 2주간
010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011	생물 다양성의 감소	
012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	
016	연설, 일반 알현, 강론	사순 3주간
016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호합시다	
016	피조물은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017	인간 생명을 수호하십시오, 지구를 보호하십시오	
019	피조물 보호를 위한 영적 동기	
022	우리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주기	사순 4주간
026	물에 대한 권리	
026	새로운 생활 방식	
030	생명을 주는 물	사순 5주간
030	지구는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031	신앙, 포용, 지속 가능한 발전	
034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도전 과제입니다	
038	원대한 희망	성주간



## 서문

###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우리는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미사에, 교회 일치를 위한 자발적 연대의 차원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음의 원칙과 계명들에 충실한 직무가 가진 무한한 마음들이 우리 형제애와 우정에서 솟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일치와 친교를 재건하려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노력이 의미 있고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한 17,21 참조), 우리도 이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은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염려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봉사,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진정한 봉사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9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저는 역사적인 ‘공동 선언’을 작성하여, 하느님 창조물의 거룩함과 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막중한 임무를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무엇보다 먼저 지구 곳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뜻합니다. 피조물 보호에 대한 긴급한 요청과 과제는 인류 전체에게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향해 노력하라는 초대입니다. …… 일치된 공동의 응답이 없다면, 공동의 믿을만한 책임이 없다면, 연대와 봉사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한 진정한 지속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sup>1)</sup>

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 2017. 9. 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2018), 38-40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활 양식과 탐욕스러운 세계 자원 소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행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창조계를 변모시킬 우리의 임무와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직접 반영해 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상 사물을 대할 때, 우리는 천상 실재의 거룩함을 알고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리는 절제와 성찬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곧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관계망 안에서 또 이를 위하여 각자 맡은 개인적 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구가 이를 유지하고 뒷받침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엄청나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를 명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나아가 피조물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반영됩니다. 실제로, 생태 분야에서 우리가 한 행동은 결국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로 가늠됩니다. 자연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간과하는 사회는 자연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참된 피조물을 악용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염려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여러 인간 문제에 대한 염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의 수호와 하느님 창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우리의 응답과 책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은총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루는 연대도 있습니다.

## 통합적 전망

### 전 세계의 협력 <sup>2)</sup>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 누구라도 환경 위기와 배척당한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서 더 나은 미래 건설을 내세울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합니다.

### 노동의 가치 <sup>3)</sup>

인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 온전한 생태론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노동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에서 이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시어, 그곳을 보존하게(돌보게)하셨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일구도록) 하셨습니다(창세 2,15 참조). 그래서 노동자와 장인이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합니다”(집회 38,34). 현실에서, 피조물의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인간의 개입은 세상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께서 사물에 심어 넣으신 가능성이 전개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제1판), 13항

3) 「찬미받으소서」, 124항.

## 우리 자녀들에게 빛진 자산을 보전하기 <sup>4)</sup>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구는 관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구는 모든 이를 위한 어머니입니다. 지구가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나 그보다 더 나쁜 오만한 주인 행세가 아니라 바로 존중입니다.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냉장고 · 냉동고 덜 채우고 음식은 먹을만큼만 조리하기
- 제철 재료와 우리농산물 이용하기
- 고기와 유제품 섭취 줄이고 채식 즐겨먹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 · 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4) 프란치스코, '2015년 아이디어 엑스포 - 밀라노 현장을 향하여' 라는 이탈리아와 국제 대표단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 2015.2.7.



## 사순 제1주간 문제

1. 매년 9월 1일 ‘이 날’은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라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피조물 보호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날”입니다. 알맞은 날을 고르시오. (     )

- 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② 지구의 날    ③ 환경의 날    ④ 세계습지의 날

2-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 (     )

“기후변화는, 무엇보다 먼저 지구 곳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뜻합니다. 피조물 보호에 대한 긴급한 요청과 과제는 인류 전체에게 (     ) 온전한 발전을 향해 노력하라는 초대입니다. …… 일치된 공동의 응답이 없다면, 공동의 믿음만한 책임이 없다면, 연대와 봉사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한 진정한 지속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 ① 유지 가능하고    ② 성장 가능하고    ③ 지속 가능하고    ④ 변화 가능하고

3. (     )

참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리는 (     )와 (     )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부름 받습니다. 곧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관계망 안에서 또 이를 위하여 각자 맡은 개인적 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 ① 절제, 참회    ② 찬미, 흠송    ③ 기쁨, 희망    ④ 절제, 성찬



4.

(     )

나아가 피조물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반영됩니다. 실제로, 생태 분야에서 우리가 한 행동은 결국 사람들에게 특히 (     )한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로 가늠됩니다. 자연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간과하는 사회는 자연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참된 피조물을 악용하는 사회입니다.

① 부유

② 가난

③ 협력

④ 노력

5-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5.

창조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시어, 그곳을 보존하게(돌보게)하셨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일구도록) 하셨습니다(창세 2,15 참조). 그래서 노동자와 장인이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합니다”(집회 38,34). 현실에서, 피조물의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인간의 개입은 세상을 돌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     )가 되어 하느님께서 사물에 심어 넣으신 가능성이 전개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악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집회 38,4).

답 :

6.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     )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구는 관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답:



## 이 시대의 도전 과제에서 전 세계적 기회로

###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5)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는 인간 삶의 많은 필수 조건들과 관련된 복잡계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온난화는 해수면의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켰으며, 개별 기상 현상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지만 심각한 기상이변 현상의 증가와 온난화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온난화에 맞서 싸우거나, 최소한 인간이 이러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곧 이산화 탄소, 메탄, 산화 질소와 같은 화학 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대기 중에 집중되어서 지표면에 반사된 햇살의 열이 우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온난화는 탄소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난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조장하여 온난화된 지역의 물과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극지방과 고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려 매우 위험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냉동되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산화 탄소 배출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는 예상롭지 않은 기후 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는 자연 보호 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삼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 복지나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5) 「찬미받으소서」, 23-26항.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 생물 다양성의 감소 <sup>6)</sup>

경제, 상업, 생산 활동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으로 지구의 자원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숲과 산림 지대의 손실은 생물종들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물종들은 식량만이 아니라 질병 치료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미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다양한 생물종들을 그저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여겨 그 고유한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균류, 해조류, 벌레 무리, 파충류,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필요합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은 종들은 눈에 잘 띄이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생태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계가 위기 상태에 놓이면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이라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과도해져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일으킨 재난이 새로운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관여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따금 발생합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고 빠른 금전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생태계 보존에 참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피해 비용은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막대합니다.

대양은 우리 지구의 대부분의 물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엄청난 수의 다양한 생명체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과 호수와 바다와 대양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은 세계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특정 어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는 무절제한 포획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우리는 육지의 거대 삼림에 비교되는 산호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호초는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해면동물, 조류와 같이 거의 백만 종에 달하는 생명

7) 필리핀 주교회의 사목 교서 '아름다운 우리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What is Happening to our Beautiful Land?), 1988.1.29.

체를 보호합니다. 오늘날 세계 산호초의 대부분은 이미 황폐화되거나 지속적인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해양 세계를 광채나 생기가 없는 바다 묘지로 만들어 버렸습니까?”<sup>7)</sup>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삼림 파괴, 단일 작물 재배, 산업 폐기물, 특히 청산염과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파괴적인 어업 방식에 따른 오염이 바다까지 이르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적절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관련되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sup>8)</sup>

오늘날 문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비 습관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국가들에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생태 감각과 관용의 정신을 지니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훌륭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습관들이 자라나기 힘든 지나치게 많은 소비와 풍요로운 상황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생태 교육은 신비이신 분을 향한 도약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신비이신 분께서는 환경 윤리에 가장 깊은 의미를 주십니다. 또한 교육자들이 생태 윤리의 교육 방법을 새로 고안하여 연대와 책임, 그리고 연민에 바탕을 둔 배려를 함양하는 데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 시민 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교육은 이따금 정보 제공에만 머물러 습관의 형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률과 규범이 존재하여도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릇된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법규범이 의미 있는 지속적 효과를 거두려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적절한 동기 부여로 이를 받아들여 개인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한 덕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생태적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소비하고 지출할 수 있어도 난방을 하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옷을 더 껴입는 사람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신념과 태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

---

8) 「찬미받으소서」, 209-215항

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의 실천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교육은 학교, 가정, 커뮤니케이션 매체, 교리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좋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씨가 뿌려져 평생 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기에서 가정의 커다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당면한 많은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인간 성장이 요구하듯이 발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죽음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여 생명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sup>9)</sup>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 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정치와 여러 사회단체들도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의 신학교와 수도회 교육 기관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소박한 삶을 살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과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 훼손을 막으려면 권력 기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서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며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멋대로 사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사고방식이 우리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자동차 공회전, 급가속, 급정지 하지 않기
- 가까운 거리는 걷기, 먼 거리는 대중교통이용하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5.1., 39항,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제1판), 880면.



## 사순 제2주간 문제

1-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      )

오늘날 세계 산호초의 대부분은 이미 황폐화되거나 지속적인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해양 세계를 광채나 생기가 없는 (      )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삼림 파괴, 단일 작물 재배, 산업 폐기물, 특히 청산염과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파괴적인 어업 방식에 따른 오염이 바다까지 이르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① 바다 세계                      ② 지하 세계                      ③ 바다 묘지                      ④ 대양 세계

2.

(      )

그러나 ‘생태 시민 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교육은 이따금 정보 제공에만 머물러 습관의 형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률과 규범이 존재하여도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릇된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법규범이 의미 있는 지속적 효과를 거두려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적절한 동기 부여로 이를 받아들여 개인적인 (      )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한 덕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생태적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 ① 성화                              ② 변신                              ③ 변모                              ④ 변화

3-4.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3.

(      )

(      )는 탄소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조장하여 온난화된 지역의 물과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극지방과 고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려 매우 위험한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냉동되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 이산화 탄소 배출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 ① 실업화                              ② 산업화                              ③ 사막화                              ④ 온난화

4.

(      )

생태교육은 (      )이신 분을 향한 도약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이신 분께서는 환경 윤리에 가장 깊은 의미를 주십니다. 또한 교육자들이 생태 윤리의 교육 방법을 새로 고안하여 연대와 책임, 그리고 연민에 바탕을 둔 배려를 함양하는 데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 성삼

② 신비

③ 사랑

④ 주인

5-6.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5.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      )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      )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의 실천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 줍니다.

답:

6.

그럼에도 저는 여기에서 (      )의 커다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은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당면한 많은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인간 성장이 요구하듯이 발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은 죽음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여 생명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 (      )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 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답:



## 연설, 일반 알현, 강론

###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호합시다 10)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호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되는 소명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우선되는 차원으로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여 준대로 모든 피조물,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창조물 하나하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특히 아이들, 노인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궁핍한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관심을 보여 주면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족이 서로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기,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기,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이는 로마의 주교가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또한 희망의 별이 밝게 빛나게 하고자 우리 모두가 요청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호합시다!

### 피조물은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11)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개별 피조물이 지닌 아름다움과 선을 거듭 밝히십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날마다 이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2.18.21.25).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피조물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받아들여 피조물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총입니다.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좋았다.”가 아니라

10)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강론, 2013.3.19,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8호(2013), 11면.

11) 프란치스코, 일반 알현 “성령의 선물 5. 지식”, 2014.5.21., 2-3항



“참 좋았다.”(창세 1,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눈에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피조물입니다.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창조주와 깊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명료하게 보고 그분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명확하게 식별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망에서, 인간이 창조의 으뜸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로새겨져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보게 합니다.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과도하거나 잘못된 태도들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러한 태도들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피조물의 주인으로 여길 위험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지배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돌보고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릇된 태도는, 마치 피조물이 우리의 모든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에만 의존하려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지식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피조물의 보호자는 바로 하느님 선물의 지킴이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조물의 보호자입니다. 피조물을 발전시키려는 보호자이지, 당신 선물을 파괴하려는 보호자는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파괴하면 피조물도 우리를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늘 용서하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몇 번 용서하지만, 피조물은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 인간 생명을 수호하십시오, 지구를 보호하십시오<sup>12)</sup>

국제 영양학회 의장님과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2회 국제 영양학회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여러 개입 형태 그리고 기존 전략들에 꼭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이 학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행동의 온전한 일치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형제애 정신이 중요합니다.

12) 프란치스코,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총회에서 한 연설, 2014.11.20.

모든 나라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더 밀접히 연결됩니다. 마치 서로 의존하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국가 간 관계가 상호 불신 때문에 어긋나버리기 일췌입니다. 상호 불신은 이따금 군사적 경제적 침략 형태로 변질되고, 동족 간의 우애도 없애며, 이미 배척받던 이들을 더욱더 거부하거나 소외시켜 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품위 있는 일거리가 없는 이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의무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아마 너무 무심하다 할 정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아와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싸움도 ‘시장의 우선 사항들’, ‘이윤의 우위성’에 가로막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권리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구석진 사각지대에 있는 굶주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건강하고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시민권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92년 바로 이곳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영양학회의 개회사에서 국제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하는 ‘풍요로움의 역설’이라는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의 역설’에 따르면, 식량은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이가 먹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을 낭비하고 내다 버리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에 관한 주제만큼, 궤변이 난무하는 주제도 없습니다. 기아에 관한 논제만큼, 자료나 통계, 국가 안보의 요구, 부정부패, 경제 위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을 통하여 쉽게 조작되는 논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연대성의 결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전의 표제어에서 연대성이라는 말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날 연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분열의 증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결국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서 품위 있는 삶을 빼앗아 버리고, 제도들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고 맙니다. 한 나라 안에 연대성이 없을 때 모두가 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대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다름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형제애의 마음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나가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서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류 가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원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식량 사용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누이이자 어머니인 대지, 우리 지구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되어 지구를 보호하고 자기 파멸의 길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앞서 페루와 프랑스에서 열린 두 번의 학회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지구를 보호하라는 과제입니다. 지구가 파괴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누이인 지구,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합시다.

## 피조물 보호를 위한 영적 동기 <sup>13)</sup>

존경하는 형제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피터 코도 아피아** 덕슨 추기경과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쿠르트 코호** 추기경께.

저는 존경하는 동방 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피조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7-9항 참조),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저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소개할 때 참여한 그 대리인 페르가몬 관구장 요한 대주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교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행해 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가톨릭 교회에서도 9월 1일 제정하고 올해부터 이날을 거행하기로 하였음을 형제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거행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은 신자 개인과 공동체에게 피조물의 보호자로 부름받은 이 소명에 직접 새롭게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이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라고 맡기신 당신의 놀라운 위업에 감사드리며, 피조물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할 것입니다. 정교회와 같은 날에 지내는 이 기도의 날은 우리가 정교회 형제들과 점점 더 깊은 친교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주요 문제들에 직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공동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가방 안에 장바구니 넣고 외출하기
- 해마다, 철마다 새 옷 구입하지 않고 한번 산 옷 끝까지 입기
- 매주 목요일은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는 날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13) 프란치스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 2015.8.6.



## 사순 제3주간 문제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 )

우리 삶에서 ( )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① 그리스도      ② 어린이      ③ 인류      ④ 부모

2. ( )

( )가 되는 소명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우선되는 차원으로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차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여 준대로 모든 피조물,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창조물 하나하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특히 아이들, 노인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궁핍한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관심을 보여 주면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족이 서로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 ① 보호자      ② 수호자      ③ 경험자      ④ 창조자

3. ( )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개별 피조물이 지닌 아름다움과 선을 거듭 밝히십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날마다 이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2.18.21.25).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피조물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받아들여 피조물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 )의 은총입니다.

- ① 지혜      ② 지식      ③ 지존      ④ 지구

4.

(      )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창조주와 깊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지식의 은총은 우리가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명료하게 보고 그분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명확하게 식별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망에서, (      )이 창조의 으뜸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로새겨져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보게 합니다.

① 피조물

② 동물

③ 인간

④ 식물

5-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5.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92년 바로 이곳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영양학회의 개회사에서 국제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하는 (      )이라는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식량은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이가 먹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을 낭비하고 내다 버리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설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에 관한 주제만큼, 궤변이 난무하는 주제도 없습니다. 기아에 관한 논제만큼, 자료나 통계, 국가 안보의 요구, 부정부패, 경제 위기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을 통하여 쉽게 조작되는 논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답: \_\_\_\_\_

6.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      )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전의 표제어에서 연대성이라는 말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날 연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분열의 증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결국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서 품위 있는 삶을 빼앗아 버리고, 제도들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 연대성이 없을 때 모두가 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대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다름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형제애의 마음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며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나가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답: \_\_\_\_\_



### 우리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 주기 14)

동방 정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며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지지로, 가톨릭 교회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거행합니다. 이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라고 맡기신 당신의 놀라운 위업에 감사드리며, 피조물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할 것입니다.” 15)

#### - 지구는 울부짖습니다

이 담화로 저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찬미받으소서』, 3항)와 함께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환경 파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정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엄청난 폐허와 사막과 오염”(『찬미받으소서』, 161항)으로 얼룩진 오염된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통합 생태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서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다루면, 인간도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존중받아야 하는 내적 가치를 지닙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찬미받으소서』, 49항)에 귀를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응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며, 균형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일구고 돌보게”(창세 2,15)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무 많이’ 일구거나, 곧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착취하거나, 이와 반대로 이 땅을 거의 돌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에 벌어지는 것을 마주하여, 현재 거행되는 자비의 희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고해성사에서 힘을 얻는 “깊은 내적 회개”(『찬미받으소서』, 217항)를 요청합니다. 이 희년 동안에,

14) 프란치스코 제2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20169.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55호(2017), 143-151면.

15) 프란치스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 20158.6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 온 피조물에 저지른 죄에 관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도 자비를 간청하며 생태적 회개의 길을 향하여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 - 양심 성찰과 회개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언제나 양심 성찰입니다. 이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커다란 보편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에 넘치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2000년 회년에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종교적 불관용과, 유대인, 여성, 토착민, 이민, 가난한 이, 신생아에 대하여 자행되는 불의를 개선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저마다는 왜곡된 성공 문화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무절제한 욕망”(『찬미받으소서』, 123항)으로 이루어진 특정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배척이나 자연 파괴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고방식”<sup>16)</sup>을 이용하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양심 성찰과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피조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sup>17)</sup>을 알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환경에 저지른 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방향 전환

우리의 양심 성찰, 그리고 자비로 넘치시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회개와 고백은 삶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낳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피조물을 좀 더 존중하는 태도와 구체적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보잘 것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16) 프란치스코, 제2차 대중 운동 모임에서 한 연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2015.7.9.

17) 프란치스코, 수요 일반 알현 교리교육, 2016.3.30.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 그리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하기”(「찬미받으소서」, 222항) 때문입니다.

## - 자비의 새로운 활동

“자비만이 우리가 하느님께 더 깊이 일치하게 해 줍니다. 자비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sup>18)</sup>

야고보 성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활동이 없는 자비는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 급속도로 변화하고 더욱더 세계화되는 이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자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선 활동의 새롭고 실질적인 형태를 개발하는 데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sup>19)</sup>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전통적인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의 실천을 포함합니다.<sup>20)</sup> 그래서 저는 각각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육체적 영적 자비의 활동에 각각 한 가지를 덧붙이도록 제안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영적인 활동으로,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찬미받으소서」, 214항)을 요구하며, 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발견하게 합니다”(「찬미받으소서」, 85항). 자비의 육체적 활동으로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폭력, 착취, 이기주의의 논리를 타파하는 단순한 일상 행위”(「찬미받으소서」, 230항)를 필요로 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로 드러납니다”(「찬미받으소서」, 231항).

18) 프란치스코, 첫 번째 묵상, 사제들을 위한 회년의 피정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로마, 2016.2.

19) 프란치스코, 수요 일반 알현 교리교육, 2016.3.30.

20) 자비의 육체적 활동은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 주기,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 주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 나그네 맞아 주기, 병든 이 돌보아 주기,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 가기, 죽은 이들을 묻어 주기이다. 자비의 영적 활동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기,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죄인들을 꾸짖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기,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인내로 견디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이다.



## 결론 - 기도합시다

우리 죄와 우리 앞에 놓인 벽찬 도전에도 우리는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3.245항).

특히 9월 1일에, 그리고 올해의 나머지 날들에도 기도합시다.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찬미받으소서」, 246항).

오, 자비의 하느님,

저희를 용서하시어

저희가 우리 공동의 집에

당신 자비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찬미받으소서.

아멘.

## 물에 대한 권리 <sup>21)</sup>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은 모든 것의 한처음에 있습니다(창세 1,2 참조). 물은 생명과 비옥함의 원천인 ‘유용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피조물’입니다(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 참조). 물이 있는 곳에 생명도 있고, 그래서 사회가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물에 접근권을 지닙니다. 이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이고 현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찬미받으소서」, 30항; 「진리 안의 사랑」 [Caritas in Veritate], 27항 참조). 물에 대한 존중은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찬미받으소서」, 30항 참조). 이 권리를 기본권으로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권리들을 수호하려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물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이 임무에는 돌봄의 문화가 필요합니다(「찬미받으소서」, 231항 참조).

## 새로운 생활 방식 <sup>22)</sup>

성경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땅에는 아직 들의 덩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 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2,5)라고 합니다.

땅은 고귀한 선물과 유산으로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마침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에페 1,10 참조) 우리 모두는 땅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복지는 피조물 전체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과 깊이 연관됩니다.

21) 프란치스코 ‘물에 대한 인권’ 세미나에서 한 연설, 2017.2.24.

22)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담화, 2017.9.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7호(2018), 38-40면.

기후 변화는, 무엇보다 먼저 지구 곳곳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뜻합니다. 피조물 보호에 대한 긴급한 요청과 과제는 인류 전체에게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향하여 노력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동일한 관심으로 하나 되고, 지구를 공동의 선으로 인식하여 선의의 모든 사람이 9월 1일에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이날 우리는 고귀한 선물인 피조물에 대하여 사랑이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피조물 보호와 보존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샤워시간 10분 이내로 끝내기!
- 세탁물 모아 세탁하기
- 플라스틱 생수 마시지 않고 물 끓여 먹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 사순 제4주간 문제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 )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언제나 ( )입니다. 이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커다란 보편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에 넘치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 ① 생태적 회개      ② 양심 성찰      ③ 고해성사      ④ 성찬 전례

2. ( )

야고보 성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 )이 없는 자비는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 급속도로 변화하고 더욱더 세계화되는 이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침묵      ② 동행      ③ 활동      ④ 사랑

3. ( )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 )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 ① 잡힌      ② 갇힌      ③ 죽은      ④ 잊힌

4.

(     )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은 모든 것의 한처음에 있습니다(창세 1,2 참조). 물은 (     ) 과 (     )의 원천인 ‘유용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루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도 있고, 그래서 사회가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① 생명, 비옥함

② 생명, 평화

③ 생명, 생수

④ 생명, 영생

5-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5.

땅은 고귀한 선물과 유산으로 우리에게 맡겨졌으며, 마침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땅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닙니다.

답:

\_\_\_\_\_

6.

(     )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뜻합니다. 피조물 보호에 대한 긴급한 요청과 과제는 인류 전체에게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향하여 노력하라는 초대입니다.

답:

\_\_\_\_\_



### 생명을 주는 물 23)

몇 해 전부터 가톨릭 교회는 정교회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어, 또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동참 아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도의 날에는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은 매우 평범하지만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물을 얻는 데에 불가능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 세상은 커다란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맞갖은 생명권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30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은 평화와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 남의 성사인 세례성사가 곧바로 연상됩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진 물은 세례성사의 질료이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은 영원한 삶을 위한 복된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요한 19, 28)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목마름을 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목말라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의 목마른 모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마태 25, 35)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마실 것을 주는 일은 개인이 보이는 애덕의 몸짓일 뿐 아니라, 으뜸 선익인 물을 모든 이에게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선택이자 지속적 사명입니다.

### 지구는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24)

지구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모든 이에게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끔찍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척결하려면, 불의와 불평등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정책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책들로 채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3) 프란치스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2018.9.1.,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59호(2019), 17-22면

24) 프란치스코, ‘물, 농업, 식량: 내일을 건설해 나갑시다’에 관한 학술 대회 참석자들에게 한 메시지, 2018.12.13.

지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창조주께서 손수 빚으신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는 인류 가족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물은 오염되고 폐기물이 쌓여 가며 삼림이 계속 파괴되고 공해가 심해지며 토양은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낭비하고 함께 나누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는 음식의 가치를 알고, 광적이고 강박적인 소비주의에서 멀어지며, 식탁이 그저 허영이나 낭비나 야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만남과 형제애를 위한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앙, 포용, 지속 가능한 발전 <sup>25)</sup>

### - 지속 가능성과 포용

2015년 9월에 19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승인한 ‘2030년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은 꼭 필요한 “새로운 보편적 연대”(「찬미받으소서」, 14항)의 표징이 되는 전 세계적 대화를 향하여 진전하는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 전통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목표들이 한편으로는 개인의 가치들을 반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전망으로 지탱되는 전 세계적 참여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 - 온전한 발전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화를 제안할 때에는, ‘발전’이 복합적인 개념이고 자주 악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발전입니까?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매우 오랫동안 발전에 대한 생각은 관습적으로 거의 전부 경제적 성장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국가 발전의 지표들은 국내 총생산에 기초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 체계를 위태로운 섯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보는 물질적 성장의 측면에서만 평가되어 왔고, 이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무적이다시피 부조리하게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마저도 착취해 왔습니다.

---

25) 프란치스코, ‘종교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들(SDGs):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기’ 국제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19.3.8

실제로,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강조하셨듯이, 인간 발전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소수만이 아닌 모든 인간, 그리고 물질적 차원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14항 참조). 따라서, 발전에 관한 효과적인 논의가 되려면, 사회적 통합과 생태적 회개의 실천 가능한 모범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 확대와 환경 훼손을 부추기면서 우리는 더욱 인간답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26)</sup> 인간 발전은 단지 경제적 문제나 전문가들 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발전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소명,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응답을 요구하는 부름입니다(『진리 안의 사랑』, 16-17항 참조).

## -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연합의 2030년 의제는 모든 목표를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다섯 요소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다섯 요소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그리고 동반자 관계(Partnership)입니다.<sup>27)</sup>

저는 목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무한 성장과 제약없는 소비라는 신화에 바탕을 둔 번영의 개념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06항 참조). 그러한 번영의 개념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오직 기술 진보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신화를 완고히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문제와 생태 문제는 윤리적 성찰이나 커다란 변화 없이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찬미받으소서』, 60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이미 “생태적 회개를 장려하고 지지해야 할”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01.1.17.)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 악습, 태만의 인정, 그리고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과, 또 창조주와 화해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218항 참조).

26) 예를 들어, 권력 분배의 불평등 때문에 막중한 부채의 무게가 가난한 이들과 빈곤 국가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무역 확대에도 실업이 확산될 때, 또는 사람들이 단지 다른 이들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발전의 준거 모범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보라는 명목으로 발전의 원천인 우리 공동의 집을 파괴해 버릴 때, 주도적인 발전 모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세계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발전에 관한 대화 당사자들은 세계 경제 정치 체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왜곡된 발전의 원인들에 맞서 또는 최근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구조적 죄’라고 일컬은 것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죄를 고발하면서, 종교들은 이미 세계 발전에 관한 논의에 유익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발과 더불어 개인들과 공동체들에게 실천 가능한 회개의 길들도 제시해야 합니다.

27) 국제 연합, “세상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 참조.



## - 토착민

모든 종교의 으뜸 원리는 이웃 사랑과 피조물 보호입니다. 저는 특별한 한 무리의 종교인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바로 토착민입니다. 토착민은 전 세계 인구의 5퍼센트지만 지구 육지의 거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과 북극과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80퍼센트 정도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과의 고유한 관계를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 공동체 안에 있는 언어와 문화의 폭넓은 다양성을 보여 줍니다.”<sup>28)</sup>

깊이 세속화된 세계에서 이들 토착민은 우리 지구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염려가 2030년 의제를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들을 찾는 데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결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채택한 지 3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에 적절히 응답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 서둘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욱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증진하는 일에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일이 때로는 매우 힘든 숙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05항). 이것이 현 상황이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불의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

28) 유네스코, '세계 토착민의 날'을 맞이하여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보내는 메시지 2017.8.9.

##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도전 과제입니다<sup>29)</sup>

우리 공동의 집의 위태로운 상황들은 주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따르던 경제 모델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무한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에 바탕을 두고 근시안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경제 모델입니다. 우리는 “시장 자체가 온전한 인간 발전과 사회 통합을 보장할 수 없다.”(「찬미받으소서」, 109항)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는 오로지 금전적인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보장될 수 없다.”(「찬미받으소서」, 190항)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6세 교황께서 글로 남기셨듯이,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민족들의 발전」, 22항). 이것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형제 주교들이 최근에 발표한 광업에 관한 사목 교서에서 밝힌 견해는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사목 교서에 따르면, “우리는 ‘채굴주의’를 통하여 자연 재화를 자본으로 바꾸려는 경제 체제의 견착을 수 없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광물을 최단 시간에 최대한 많이 ‘채굴하여’, 이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원료와 생산 요소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다른 이들이 상품화하고 사회가 소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것은 다시 자연이 오염된 폐기물 형태로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더 가속화되고 있고 큰 위기를 초래하는 소비주의의 악순환입니다.”<sup>30)</sup>

우리는 이러한 버리는 문화를 규탄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산업 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끝에 나오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나 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효율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합니다”(「찬미받으소서」, 22항). 순환 경제의 증진과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의 접근법은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열두 번째 목표가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들’에 매우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종교 전통들은 언제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

29) 프란치스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주최한 광업에 관한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19.5.3.

30)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본 식별”, 보고타 2018년, 11항

방식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절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절제는 우리 공동의 집을 살리는 데에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의 집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참으로 교회 일치의 (ecumenico)여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oecumene)집의 한 구성원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하도록”(「찬미받으소서」, 14항) 부름받았습니다.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멀티탭 개별 스위치 사용하기
- LED 전구로 교체하기
- 스마트폰 사용 1시간 줄이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 )

물은 매우 평범하지만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물을 얻는 데에 불가능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 )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 ① 결과                      ② 행위                      ③ 인권                      ④ 사명

2. ( )

우리 시대의 목마른 모든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마실 것을 주는 일은 개인이 보이는 애덕의 몸짓일 뿐 아니라, 으뜸 선익인 물을 모든 이에게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 )이자 지속적 ( )입니다.

- ① 선택, 사명                      ② 합의, 사명                      ③ 선택, 노력                      ④ 행위, 사명

3. ( )

인간 발전은 단지 경제적 문제나 전문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발전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소명,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 )을 요구하는 부름입니다.

- ① 선택                      ② 실천                      ③ 참석                      ④ 응답

4.

(     )

국제 연합의 2030년 의제는 모든 목표를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다섯 요소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다섯 요소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     )(Peace), 그리고 동반자 관계(Partnership)입니다.

① 평화

② 평등

③ 평범

④ 평교

5-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공통된 단어를 적으시오.

5.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채택한 지 3년 반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구의 (     )과 가난한 이들의 (     )에 적절히 응답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 서둘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욱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답: \_\_\_\_\_

6.

우리는 이러한 버리는 문화를 규탄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욱이 종교 전통들은 언제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 방식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     )를 제시해 왔습니다. (     )는 우리 공동의 집을 살리는 데에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답: \_\_\_\_\_

7-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7.

모든 종교의 으뜸 원리는 이웃 사랑과 (     )입니다.

답: \_\_\_\_\_

8.

공동의 집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참으로 (     )의 여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oecumene) 집의 한 구성원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답: \_\_\_\_\_

## 원대한 희망 31)

성경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 전례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온갖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고자”(「로마 미사 경본」, 감사 기도 제4양식 감사송)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밝혀 줍니다.

### - 선물인 창조된 세상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 안에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 다소 과감히 말하자면 유전적인 - 어떤 모습, 어떤 흔적, 어떤 기억을 가집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사랑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빛나는 부성애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서 저자는 하느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지혜 11, 24-26).

31)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글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생겨났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며 우리가 이러한 당신의 존재 방식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피조물은 단순히 자연과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흐르는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체험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시련이나 위기, 기쁨이나 성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선물로 살아가고 현존을 드러내기 위하여**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처럼 ‘살’ 수 있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곧 선물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우주가 응축된 소유주이지만 인격적인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얼굴에 붙어 넣어 주신 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 안에서만, 세상은 본연의 내밀한 성사성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만이 세상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언제나 인격적인 실재입니다. 선물 안에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어느 모로든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물은 받는 이에게, 그 선물을 보면서 그것을 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선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의 삶을 함께하고자 하는 친교의 표시입니다.

## **- 환경 재앙: 우리 시대가 당면한 위기의 한 측면**

모든 것이 선으로,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찬미받으소서」, 42,56항 참조), 바로 이러한 까닭에 사랑이 부족하면 언제나 모든 것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생태 위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다른 이들, 세상,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는 이 병든 시선에서 비롯된 결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시선이 병들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 판단 기준, 우리 선택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을 되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로 오늘날 잘 알려져 있듯이,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환경 이민, 지구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해양의 산성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떨어질 수 없는 측면들입니다(『복음의 기쁨』, 52-53. 59-60. 202항 참조).

## - 문화적 도전

오늘날 생태 위기로 지구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위험들 가운데 하나는, 이 현상을 전 세계적 위기의 측면으로 이해하지 않고, - 비록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 순전히 환경적 해결책만 모색하는 데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적 전망과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고결한 의미에서 정신적 새로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기후 변화는 우리가 창조된 존재의 신비에 관하여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하여 심도 있는 물음을 던져 보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경제 모델들을 깊이 있게 재검토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의와 나눔 안에서 각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글, 만남, 오락,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주류문화는 소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물, 성공, 눈에 보이는 것들, 권력 등에 대한 소유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매우 가치 있고 존경받으며 배려 받고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합니다. 반면에 적게 가진 자 또는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얼굴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살아 가지만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우리가 존재조차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 또는 우리가 아예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상업적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자라났습니다. 세계화의 실질적 이데올로기이자 실천인 이러한 상업적 이데올로기는 우리 안에 개인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현 상황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자세는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실(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표현하신 대로) 죄의 구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sup>32)</sup> 죄의 구조는 악을 양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와 굴욕을 입히고, 소유와 힘의 논리를 북돋우며, 천연자원을 과잉 착취하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들며, 증오와 폭력적 전쟁을 조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왜곡시키는 문화적 정신적 경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영적 감각은 -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덕분에 -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과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도록 이끕니다.

## - 용서에서 다시 출발하기

우리가 목표를 잃어 가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 더 정확히 말해서 좋지 않은 것, 나쁘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참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배척받는 이들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과 바다에, 공기에, 동물들에게 저지른 악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성령께서는 개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는 친교의 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을 떨쳐 버리려면, 잘못을 인정하려면, 참으로 새로운 길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려면, 잘못을 인정하려면, 참으로 새로운 길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려면,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한 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되이 간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 - 전례에서 배우기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에서,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펼치는 노력 외에도

---

32)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0., 36-40항 『교회와 사회』, 799-808면 참조.

우리가 신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날마다 전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에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 전체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성제에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밀과 포도)을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활동을 통하여 우리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사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음식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고, 중요한 관계들에 몰입하며,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싸우고, 세상의 삶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게 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탁월한 두 상징 요소입니다. 하느님 선물과 우리 사명 사이에, 우리와 다른 이들의 노동 사이에, 일상의 노고 그리고 관계들과 축제의 기쁨 사이에 이루는 일치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 성찬례는 사랑으로 세상을 만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런데 실제로 미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봉헌하면서, 성부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성자 그리스도의 그 봉헌 제물에 우리의 가난도 결합시켜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주신 가장 탁월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느님 자녀의 생명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성찬례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듯, 모든 피조물(사람, 사물, 동물, 식물, 시간, 공간)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느님께서 인격적으로 건네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 - 원대한 희망

선물, 참회, 봉헌, 형제애. 현실과 피조물에 대한 전망은 바로 이 네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네 단어는 또한 소유와 권력과 남용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나눔과 협력과 존중으로 나아가는 치유 여정도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맞 들인 진정한 생태인이고 생태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의 수호자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 준 대로 보편적 형제애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저의 원대한 희망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 보일러 · 에어컨 사용 1시간 줄이기
- 문풍지 같은 단열 재료로 열손실 방지하기
-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 · 식물들 기억하며 기도하기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 )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생겨났고, 하느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며 우리가 이러한 당신의 존재 방식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피조물은 단순히 자연과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흐르는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 ① 포함                      ② 결합                      ③ 계획                      ④ 연결

2. ( )

인간은 자신 안에 우주가 응축된 소우주이지만 인격적인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얼굴에 불어 넣어 주신 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 안에서만, 세상은 본연의 내밀한 성사성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만이 세상이 ( )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선물                      ② 무                      ③ 우주                      ④ 만물

3. ( )

실제로 오늘날 잘 알려져 있듯이, 오염, 기후 변화, 사막화, 환경 이민, 지구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해양의 산성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이 모든 것이 사회적 ( )과 떨어질 수 없는 측면들입니다.

- ① 불만족                      ② 불공평                      ③ 불평등                      ④ 불명예

4. ( )

오늘날 ( )로 지구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위험들 가운데 하나는, 이 현상을 전 세계적 위기의 측면으로 이해하지 않고, - 비록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 순전히 환경적 해결책만 모색하는 데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적 전망과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고결한 의미에서 정신적 새로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① 생태 위기                      ② 자연 재해                      ③ 자연 착취                      ④ 생태 재해

5-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적으시오.

5.

어릴 적부터 우리는 상업적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자라났습니다. 세계화의 실질적 이데올로기이자 실천인 이러한 상업적 이데올로기는 우리 안에 (     )를 불러일으킵니다.

답: \_\_\_\_\_

6.

(     )는 악을 양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와 굴욕을 입히고, 소유와 힘의 논리를 복돋우며, 천연자원을 과잉 착취하고, 강제로 주민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들며, 증오와 폭력적 전쟁을 조장합니다.

답: \_\_\_\_\_

7.

사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음식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고, 중요한 관계들에 몰입하며,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싸우고, 세상의 삶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게 합니다. (     )과 (     )는 탁월한 두 상징 요소입니다. 하느님 선물과 우리 사명 사이에, 우리와 다른 이들의 노동 사이에, 일상의 노고 그리고 관계들과 축제의 기쁨 사이에 이루는 일치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답: \_\_\_\_\_

8.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맛 들인 진정한 생태인이고 생태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의 수호자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 준 대로 (     )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저의 원대한 희망입니다.

답: \_\_\_\_\_

## MEMO





함께 걸어나가는  
하느님 백성!